

국내 도보여행코스의 형태별 분류

The Classification of Shapes For Walking Tour Courses

양지혜, 김한일
제주대학교

Yang Ji-hye, Kim Hanil
Jeju National Univ.

요약

국내외 걷기 문화의 확산으로 도보여행객이 증가하고 많은 길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도보관광객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도보여행코스의 형태가 관광객의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도보여행코스의 형태별 분류를 진행하였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코스 개발, 도보여행의 취지와 효과에 맞는 형태의 코스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 서론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걷기 중심의 길 만들기과 문화의 확산은 이미 전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며, 국내에서도 100여 개의 길이,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개설되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관광 추세가 수동적인 관람형 여행에서 모험, 탐구, 배움을 수반하는 체험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생태/문화 체험형 도보여행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

하지만 최병길, 이영관(2011)은 도보관광객과 도보관광코스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몇 개의 코스를 제외하고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도보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였다.[2]

도보관광객의 동선을 결정하는 도보여행코스 자체의 형태가 도보관광객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코스의 형태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형태별 분류를 진행하였다.

II. 국내 도보여행코스의 형태 연구

1. 관련 연구

도보여행의 붐이 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였으며, 박시사, 노경국(2010)은 '도보여행객의 여행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를, 최병길, 이영관, 이주영(2011)은 '도보관광지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가 관광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철, 정란수, 이훈(2011)은 '도보관광수요와 파급효과 분석'을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도보여행동기와 파생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탐방로가 위치하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길의 종류를 숲길, 강길, 해안길, 마을길, 바닷길로 분류하였고, 길의 유형을 자연중심형 탐방로(natural-

based root), 문화중심형 탐방로(cultural-based root), 두가지를 혼합한 혼합형 탐방로로 구분하였다.[1]

하지만 길의 형태와 동선에 관련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2. 조사 방법

전국 길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보도자료, 보고서에서 언급한 길을 우선 조사하였다.

각 길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 홍보물을 요청하여 수집하고,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도를 통해 길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여행작가협회의 발간한 도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도서를 참고하였고, 걷기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소개하고 네티즌의 방문이 잦은 유명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 125개의 길, 각 길의 세부코스 총 402개를 조사하였다. 코스에 따라 대체하는 경로를 가진 경우, 대안의 경로가 특성을 지니지 않고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우회하는 기능만을 한다면 주요 경로만을 가지고 형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길의 모양을 분석하는 데에 402개의 세부코스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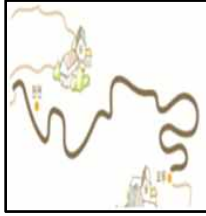
3. 조사 내용

3.1 형태별 분류를 위한 기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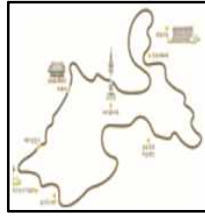
출발점, 도착점, 경로 선택 가능성을 가지고 길의 형태별 분류를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선형, 원형, 그물형, 복합형으로 설정하였다.

선형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르고 경로 선택이 불가능한 형을, 원형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나 선형과 같이 경로의 선택이 불가능한 형을 설정하였다. 그물형은 출발

점과 도착점이 여러 개일 수 있고 코스 안에서 탐방객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고, 복합형은 선형, 원형, 그물형의 기본 형태가 2개 이상 복합된 형태이다.



▶▶ 그림 1. 선형



▶▶ 그림 2.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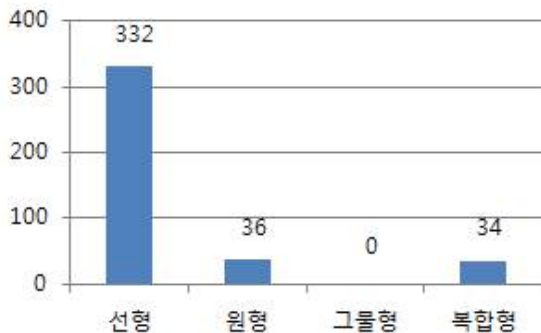
▶▶ 그림 3. 그물형



▶▶ 그림 4. 복합형

3.2 형태별 분류

402개의 세부코스를 선형, 원형, 그물형, 복합형의 기준으로 분류를 진행한 결과, 선형은 332개, 원형은 36개, 그물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복합형은 34개의 코스로 나타났다. 그물형의 경우 단독 코스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으나 복합형의 형태로 7개의 코스에서 선형이나 원형의 형태와 결합하여 나타났다.



▶▶ 그림 5. 형태별 분류



▶▶ 그림 6. 복합형 내 그물형의 개수

선형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특정 지점과 지점, 콘텐츠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형태로 코스를 개발하

는 것이 용이하고, '길'이 가지는 이동성과 진행성의 이미지가 있으므로 생각된다. 근래에는 여러 지역을 거쳐 가는 광역단위의 탐방로가 조성되고 있어(예.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삼남길 등) 선형의 길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원형은 산의 등산로를 포함한 형태로 개발되거나 둘레길과 같이 산의 둘레, 마을의 둘레를 돌아보는 형태로 나타났다. 산을 즐기는 방식이 산을 직접 오르는 형태에서 산의 둘레를 걸으면서 산세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변화가 생겨 길의 형태가 원형을 띠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 많은 콘텐츠를 전달하고, 자연과 문화의 테마를 한꺼번에 전달하기 위한 형태로 복합형을 보이는 코스도 있었다.

IV. 결론

국내에서 2007년 제주올레길이 개설되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보여행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도보여행코스가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대부분의 길들이 도보여행객에게 외면을 당하고 존재 여부도 모르는 길들도 많다.

현재 대부분의 길은 도보관광객들이 경로를 취사선택할 수 없으며, 도보관광객들은 도착지점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역문화 체험에 시간을 할애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 완주한 코스는 재방문할 동기가 적어진다.

전국 402개의 세부코스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선형이 332개로 가장 많았고, 원형과 복합형의 형태도 나타났으며, 그물형은 단독 코스로 나타나지 않았고 복합형에 포함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물형이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많은 경로를 내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고, 여러 개의 경로를 하나의 코스로 묶는 것 보다는 경로별로 코스를 설정하는 것이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보관광객이 자유롭게 경로를 선택하고, 체험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재방문할 동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로 간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 그물형의 코스를 마련하는 것이 도보여행의 취지와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1]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10.3.
- [2] 최병길, 이영관, "도보관광지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가 관광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주올레길과 지리산둘레길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35권, 제7호(통권 93), pp.299-321, 2011.9.
- [3] 김광중, "올레길 걷기 열풍의 도시설계적 함의", 환경논총 제49권, pp.27-42, 2010
- [4] 정철, 정란수, 이훈, "도보관광 수요와 파급효과 분석-제주올레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35권 제8호(통권 94), pp.389-408, 2011.10.